새총

(눅23:13-25)

13.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14.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심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15.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16.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17. (없음)
18.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19.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민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20.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21.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22.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23.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24.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25.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민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 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새총>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Y자형으로 된 나무나 쇠에다 고무줄을 매서 거기에 거치대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지만 가죽이나 질긴 헝겊 같은 것을 고무줄에 달아서 조그만 돌멩이를 거기다 매서 잡아당겨 '탕' 튕기면

그 돌멩이가 앞으로 튀어나가지 않습니까?
때로는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요즘은 그 새총이 많이 개발되어서, 그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닌가 봐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놀이기구인줄 알았는데 외국에서도 그 새총을 가지고 놀고, 뿐만 아니라 아주 발전시켜서 새총으로 돌멩이 대신 화살을 쏴서 멧돼지를 잡는 장면도 화면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새총이란 것의 특징은 고무줄을 내 쪽으로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그 새총 알이 무엇이든지 앞으로 튕겨나가는 데에 있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사람의 마음이 딱 새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사람의 마음이 왜 새총일까?
사람의 마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지고 5감관으로 어떤 대상을 접하게 되면, 그 대상이 좋다고 느껴질 경우에 마음이 끌리게 됩니다.
마치 새총의 고무줄을 잡아당기듯이 마음이 끌립니다.
마음이 끌리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마음을 잡아당겨서 끌어당기고 있는 그 대상과 관련 지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대상과 관련된 소원을 갖게 되고, 그 대상과 관련된 계획을 갖게 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쏘는 거라는 겁니다.
마음에 들고 좋아하는 것에 의해서 잡아당겨지고, 잡아당겨지면 생각을 쏘게 되고, 계획을 쏘게 되고, 소원을 쏘게 되고, 말을 쏘게 되고, 행동을 쏘게 됩니다.
이렇게 쏘게 되는 것을 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기투(企投)라고 하는 철학적인 용어를 써서 표현합니다, 기투(企投), 꾀할 기(企), 던질 투(投)자.
영어의 prosect라는 말이 있잖아요? prosect라는 게 앞으로 던진다는 얘기에요.
마음이 끌리는 일이 있을 때, 내 마음을 잡아당기는 좋아하는 일이 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계획하는 것을 prosect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철학자들 중에서 특별히 실존주의 철학자들, 하이데거나 사르트르 같은 사람들이, 프랑스어로 prosecter, 그리고 독일어로 Entwurf, 이게 다 기투(企投), 던진다, 이걸 바로 사람이 살아가는 실존의 존재방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참 이 철학자들의 언어능력이 탁월하지요?
기투(企投), '던진다' 이거에요.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새총이다.
새총을 쏘듯이 쏘는 것, 이게 바로 사람의 실존의 존재방식이다.
좋아하는 게 있으면 끌리고, 끌리는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쏘게 되고, 그리고 소원을 쏘게 되고, prosect 하게 되고, Entwurf, Entwurf라는 게 독일어의 entwerfen, 던진다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prosect 할 때 sect라는 것, section이라는 게 던진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던진다.

하나님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끌리실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창조를 하셨으니까.
창조하실 때, 그게 던지신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마치 암탉이 알을 품듯이.
그러니까 하나님 머릿속에 알,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던졌다는 거예요, 생각을 밖으로 던진 게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동이고.
생각을 던지면 그것이 말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기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창조된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던졌을 때 그것이 말씀이 되었고,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알고 오늘 본문을 보면, 아!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유대인들이, 그것도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은 선민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완전히 광기에요, 광기(狂氣).
지금 빌라도가 16절, 20절, 22절에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이 사람을 죽일 만한 일을 발견하지 못했으니 그저 때려서 놓아줄 테니까 이 정도에서 이 사람에 대한 문제를 매듭 짓자!'고 세 번이나 얘기합니다.
그런데 악을 쓰면서 세 번이나 빌라도에게 대들면서, 이 사람을 못 박아 죽이라, 명절에 한 사람을 사면해주는 풍습에 의해 한 사람을 놓아줄 바에는 살인자요, 민란을 일으킨 바라바를 놓아줄지언정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세 번이나 승강이 하면서 우깁니다.

빌라도가 결국은 굴복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내줍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죽고 싶어 할까?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한 선민 유대인들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 지구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살았던 모든 사람, 앞으로 살 모든 사람에 대한 마음의 상태를 계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던 모르던,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생명이 나타나게 하셨으니까, 몸이라는 간판을 내거셨고 그 사람의 마음, 그 영혼을 만드셔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등지고 있는 것뿐이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뿐이지…
그러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철학자들이 표현한 기투, 새총처럼 마음이 끌리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소원하고 계획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사람의 존재방식, 중립적인 언어이지요, 뭐 나쁘다 좋다를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중립적인 이 존재방식이 실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마음이 끌리는 것이 있습니다.
‘아, 내가 10년 뒤에는 이러이러한 기업의 사장이 되어야지!’
그래서 내가 꿈꾸는 기업이 있으면 마음이 거기에 끌려 마음이 좋아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좋아하게 되면 그런 기업을 위해서 소원하게 되고 계획하게 되고 추진하게 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걸 누가 나쁘다고 여기겠습니까? 평범한 일이죠.
내 자식이 마음에 끌립니다, 내 마음에 끌리면 그 자식에 대한 소원을 갖게 되고 그 소원을 갖게 되면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여가게 됩니다.
아름다운 아가씨를 봤습니다, 마음이 끌립니다, 그러면 소원이 생깁니다, 저 아가씨와 연애를 해봤으면…, 그렇게 소원을 갖게 되면 계획을 하게 됩니다.

이걸 누가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중립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볼 때 어떤 일인가 하면, 빌라도가 그렇게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끊임없이 악랄하게 지독할 정도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하는 이 선민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평범하게 중립적으로 보이는, 그냥 살아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존재방식인데, 그 존재방식 자체가 하나님을 대한 그런 무서운 증오의 표현이라 이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극렬하고 죽이고 싶어 하는 증오감을 광기 어리게 표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내 마음에 끌리는 것이나 끌리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과 그 대상에게 소원을 갖고 계획을 갖고 바람을 가지면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이 중립적으로 보이는 존재방식이 어떤 것이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증오하지 않고 하나님을 죽이고 싶어 하지 않는 한 나올 수 없는 삶의 방식이라 이겁니다.
내 마음은 실지로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하는 이 선민들과 같은 마음이라야만, 그렇게 끌리는 것이 있고 끌리는 것에 대해 생각하며 기투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얘깁니다.
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마음에 끌리는 것이 있고, 그것을 갖기 위해 계획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평범해 보이고 너무나 중립적인 삶의 방식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무서운 증오를 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서있습니까? 중간에 서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안쪽에 서계시고, 이 세상이 마음 바깥쪽에 존재합니다.
이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 마음이 끌린다는 것은, 우리가 새총을 들고 내 앞으로 잡아당겨서 바깥으로 쏴야 하는데, 반대로 새총을 들고 내 바깥쪽으로 잡아당겨서 나를 향해 쏘는 것과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내 마음이 돈이나 건강 등,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좋아하는 것으로 끌려가면 반드시 거기에 생각과 계획과 소원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것을 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중간에 서있으니까, 중간에.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에 마음이 끌려서 내 자식에 대해서 소원을 갖게 된다는 것은, 그 소원이 하나님을 향해 쏘는 것이 된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쏴진다는 얘기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인간까지 만드신 뒤에 이 세상의 창조와 이 세상을 이끄시는 섭리에 대해서 손을 놓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계속해서 창조하시고 계속해서 창조하신 것을 섭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인간을 만드신 뒤에는 어떤 것을 원하시느냐 하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끌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끌려질 때 나타나는 일은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면서 인간의 마음은 채워지게 되고, 채워지면 기쁘게 되고, 기쁘면 행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행복하게 되어 하나님께로 잡아당겨졌을 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 마음속에 당겨져서 튕겨질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소원이 표현되고 성취되어 지고 하나님의 창조가 계속 되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앞에 두고 있을 때, 그 자식이 좋아서 자식이 마음에 끌려버려서 소원과 생각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이 주권자 되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향하여 증오하는 화살을 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중립적인 존재방식으로 생각해서 하고 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과 세상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든 사람이든 간에 마음이 그쪽으로 쏠려버리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그래서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신 소원에 대해서 내가 화살을 쏘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하는 선민들의 증오심으로 이 하나님을 저항하는 그런 상태가 돼버릴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놓아주겠다는 이 빌라도의 마음에 반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몸부림치는 이 광기 어린 증오심을 보이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야만, 우리는 평범해 보이고 중립적으로 보이는 이 세상에 마음이 끌린 상태에서 생각하고 소원하고 계획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세상과, 교회도 세상이에요, 교회 일, 예배당 건축, 이게 다 세상입니다, 다 세상이에요, 그걸로 자꾸 묻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끌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새총 쏘듯이 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끌려갈까?
우리는 하나님께 끌려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보고 듣고 만져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마음이 끌릴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끌리지를 않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라면 혹시 모를까.
내가 이 땅에서 좋아하는 것들을 이루어주는 그런 하나님은 만들어진 하나님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램프의 정령 지니처럼 내가 소원하는 모든 일을 이루어주는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끌려질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세상을 향해 끌려가는 우리 마음을 끊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끌림을 끊어내는 겁니다.
세상에서 내 마음을 잡아당겨서 하나님을 향하여 증오심을 쏘게 만드는 그 끌림을 끊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끊어냅니까?
십자가를 마음속에 기억해내는 겁니다.
'나를 기념하라' 십자가 사건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잡아 끌어서 소원을 갖게 만들고, 계획을 갖게 하고,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죽는 겁니다.
그것이 건강이든 돈이든 애인이건, 아내건, 남편이건 사업이건, 자식이건, 일류대학 입학이건, 교회 건축이건, 교회부흥이건, 무엇이건 내 마음을 끄는 게 있다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끌림 자체를 중단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전에는 끌리는 대로 살면서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을 향한 증오의 표현인지도 모르고 마음껏 끌리는 대로 생각을 싸대고, 소원을 싸댔습니다. 아버지의 주권자 되심을

죽이는 것이고, 아버지의 창조주 되심을 죽이는 것이고, 아버지의 나에 대한 주도적인 사랑에 대해서 화살을 쏘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 끌림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습니다.'
이게 바로 회개고 예수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Daily Baptism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세례를 받는 것이고, 사도바울의 날마다 죽는다는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세상에서 내 마음을 끌어가는 모든 끌림에 대해서 십자가를 기억해내면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성령님께서 오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시면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끌려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끌려갈 때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 마음이 충만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상의 끌림이 다 죽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대해서는 어떤 소원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창조된 것을 섭리하시려는 계획, 하나님의 소원이 내 마음에 장전되면서 이 세상에 쏘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이 쏘아질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죠.
이 땅에 대해 아무 소원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로 성령님에 의해서 끌려간 뒤에 하나님에 의해서 마음이 채워지고 배불러지고, 그래서 아무 소원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장전되어서 쏘아지는 그런 새총, 세상을 향해서 쏘는 새총이 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십자가를 놓치면 우리는 그 누구라도, 100년 동안 살면서 하루도 안 빠지고 새총으로 십자가를 기억해서 하나님께로 끌렸던 사람이라도, 하루를 십자가를 기억하지 않으면 세상에 끌리게 돼있습니다.
그 누구라도 예외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으로 끌리는 끌림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기억하지 못해서 세상에 마음이 끌리고, 끌린 것에 대해 소원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오늘 선민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못해 안달하고, 광기 어린 증오심을 나타내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새총을 쏘는 것이 돼버립니다.
왜?

마음은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에 있는 새총이기 때문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하나님과 세상 중간에 있는 내 마음이 새총입니다.

세상에 끌리는 대로 놔두었다가는 하나님을 죽이고 싶어 미친 듯이 열광하는 유대인의 모습을 재현하며 살뿐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 끌림을 끊어내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끌려서 행복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장전되어 이 땅으로 쏴져서 성취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